세계 불교학자, '중관'을 논하다

동국대 HK연구단, 7월 27일 국제학술대회

'중론과 중관사상' 주제로 개최
대표 중관 학자들 대거 참여해
샤오용 교수 自性관련 분석 '눈길'
"俗諦 인정, 바비베카 이후 도입"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승불교의 아버지 용수를 그린 불화.

용수의 〈중론〉 등의 저작은 중관학파를 시작을 알렸고, 유가행파와 더불어 인도 대승불교철학의 양대산맥을 구축했다. 동아시아 불교에서도 중관학파는 삼론종 형성의 근간을 이루는 등 큰 영향을 미쳤다. 용수 저작으로 시작된 중관사상의 전개와 의미 등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인문한국(HK)연구단(단장 김종욱, 이하 HK연구단)은 7월 27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중론과 중관사상'을 주제로 2018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현재 세계 중관학계를 대표하는 학자들이 용수의 대표 저작인 〈중론〉 및 중관사상에 관한 주요 문제들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예 샤오용 베이징대 교수는 '자성이 없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발표를 통해 용수의 주요 주장인 '모든 것은 자성을 갖지 않는다'에서 '자성'의 개념에 대한 맥락적 분석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사오용 교수에 따르면 용수는 몇몇 게송을 통해 '자성이 없다면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후대 중관학파의 주장과는 대조되는 것이다. 이들은 '완전한 부정은 궁극적인 단계에만 적용 할 수 있으며, 사물이 관습적 단계에서 작용하고 기능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오용 교수는 "용수의 저작 중에는 이제설(二諦說)을 통해 부정의 범위를 제한시키는 문헌적 근거가 없다"면서 "〈근본중설〉에 나타난 이제설은 붓다의 설교를 분류코자 한 것으로 이는 서로 다른 가르침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무주의라는 비난을 '관습적 단계에서 실제를 허용하는' 이제설을 통해 넘어서려는 시도는 용수에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사오용 교수의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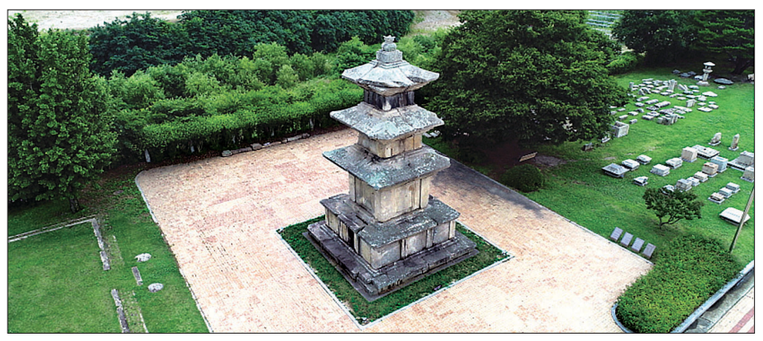
중도를 이제설과 짝을 짓는 것은 관습적 단계에서 존재를 인정한 바비베카 이전에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오용 교수는 "용수가 중도를 주장하고 허무주의라는 비판을 대응하기 위해 자성의 반박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불필요했을 것"이라며 "이런 문맥 상의 한정은 용수의 시스템을 수정하는 것에 기반한 후대의 각색"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방인들과의 대화(앤 맥도널드 오스트리아 과학 아카데미 교수) △〈쁘라산나빠다〉 제18장의 〈팔천송반야〉 인용에 대하여(니사쿠 요시아키 일본 무사시노대 교수) △바비베카 vs 찬드라끼르티(사이토 아키라 일본 국제불교학대학원대학 교수) 등의 논문이 발표됐다.

고선사지 삼층석탑 현장 '生生 체험'

국립경주博 8월 3일까지 보존처리 현장 공개 행사



북동쪽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경주 고선사지 삼층석탑의 전경.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과 동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등이 국가 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동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 '자치통감 권129~132' 등 4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7월 24일 밝혔다.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은 17세기 중엽 전라·경상지역에서 활동한 조각승 희장(熙壯) 스님을 중심으로 총 9명의 조각승이 공동으로 참여해 1665년(현종 6년)에 완성한 불상이다. 가운데 석가모니불상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각 1구의 보살상으로 구성된 삼존(三尊) 형식이다.

삼존의 보존 상태와 구성 등이 조성 당시의 모습을 거의 완전하게 갖추고 있으며, 복장물 역시 안치 당시의 모습에서 크게 훼손되지 않고 발견돼 불상 조성과 17세기 복장법식 연구에도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성보다.

'동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은 높이 2m 이상의 대형 불상조각으로, 17세기에 가장 비중 있게 활동한 조각승인 현진(玄眞) 스님의 작품이다. 좌상의 아미타불상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관음보살, 오른쪽에는 대세지보살을 배치하였는데 좌상과 입상이 삼존에 모두 등장한 것은 이 시기 삼존상으로는 드문 구성이다. 관음보살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을 통해 현진을 중심으로 5명의 조각승이 참여하여 1629년(인조 7년)에 조성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불상은 온화한 얼굴과 무게감 있는 신체 표현 등 현진의 개성을 잘 보여주며, 17세기 전반 목조 불상 중 비교적 큰 규모에 속하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홍도의 마지막 역작인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는 그가 57세 때인 1801년(순조 1년)에 그린 8폭 병풍 그림으로, 1801년 순조의 천연두 완쾌를 기념하여 만든 4점의 병풍 중 한 점이다.

'자치통감 권129~132'은 1436년(세종 18년)에 간행한 〈자치통감〉의 판본 가운데 권129~132에 해당하는 책이다. '자치통감 권129~132'는 인출(印出) 발문이 없으나, 지정된 다른 자치통감과 비교했을 때 경복궁 사정전(思政殿)에서 편집하고 1436년 주자소에서 간행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문화재청은 '진도 쌍계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등 4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조선 간행 佛書 인물 데이터베이스화 된다

순천대 남도문화硏 사업 추진

조선시대 간행된 불서와 이에 나타나는 인물 정보가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된다.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소장 이욱)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18년 토대연구지원사업'에 선정돼 3년간 6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7월 22일 밝혔다.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는 '조선시대 간행 불교 서지 인명 DB 구축' 과제가 선정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단을 구성하고 조선시대 335개 사찰에서 간행한 1600여 종 불서의 표준 정보와 인명을 DB로 구축할 계획이다.

조선시대 간행 불서는 연구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에 대한 DB가 없어 종합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5~6만 명으로 추산되는 인명 정보를 DB로 구축하고,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해 관련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성민 기자

'문·사·철'·'한국불교사연구' 발간



한국불교사연구소(소장 고영섭)가 자체 학술지인 〈문학·사학·철학〉 제52·53호와 〈한국불교사연구〉 제13호를 잇달아 발간했다.

〈문학·사학·철학〉 제52·53호에는 영어, 일본어로 읽는 한국시를 비롯해 '조선시대의 정업원(민덕식)', '동아시아 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고영섭)', 불화와 함께 보는 경전이야기 등이 실렸다. 또한 〈현대향가: 노래 중의 노래〉와 〈한국불교사탐구〉에 대한 서평도 수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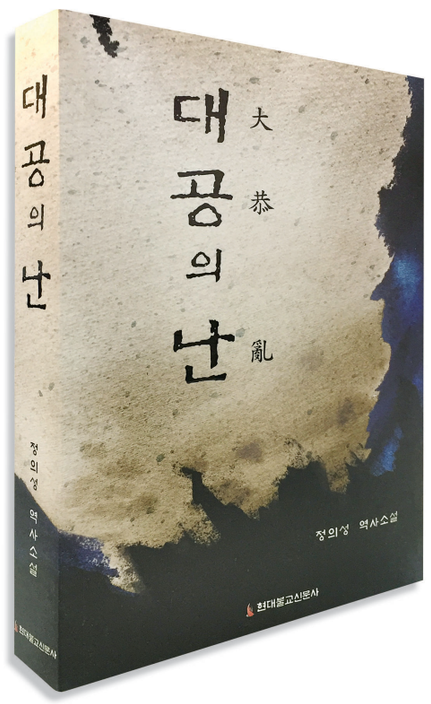
〈한국불교사연구〉 제13호에는 〈삼국유사〉 관련 연구 논문들이 게재됐다. 주요 논문으로는 〈삼국유산의 고승과 성사 이해〉, 〈삼국유산 경전과 경문〉, 〈삼국유사의 사찰과 분포〉, 〈삼국유사의 시가와 향가〉 등이다. 서평으로는 고영섭의 〈분황 원효〉가 실렸다. 신성민 기자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 大恭의 난 亂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